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45  
2025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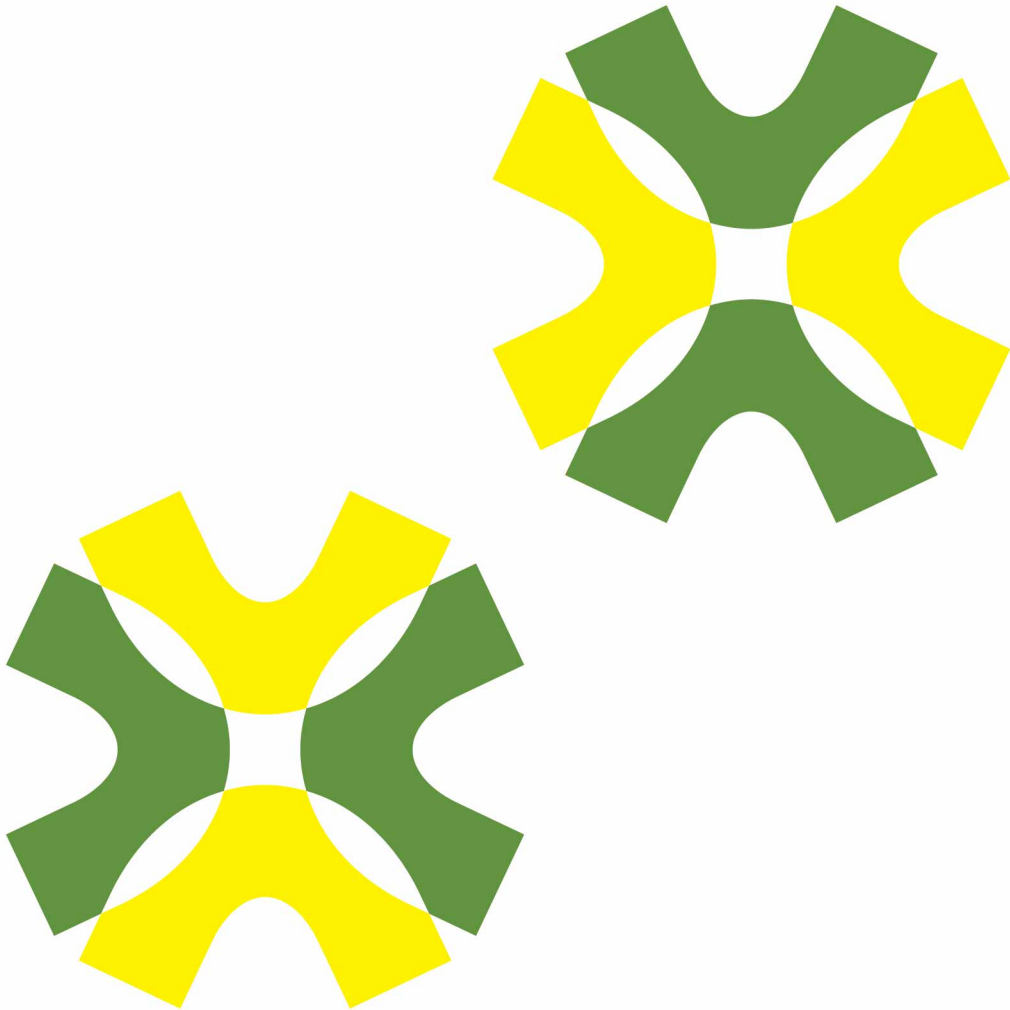
전라남도  
여수 상·하화도

ISLAND KEYWORD  
FRIENDS  
PHOTO STORY  
LIFESTYLE  
PEOPLE  
RESOURCE  
TRAVEL  
NEWS&ISSU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45

2025년 5월



# 전라남도 여수 상·하화도

ISLAND KEYWORD

FRIENDS

PHOTO STORY

LIFESTYLE

PEOPLE

RESOURCE

TRAVEL

NEWS&ISSUE

## CONTENTS

##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 03 엄마의 섬

##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04 마주 보는 두 섬, 서로 다른 길을 걷다  
김준 님

##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10 꽃이 흐르는 섬, 하화도의 꿈  
김재호 님

##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 14 올해도 우리 섬은 꽃이 피었습니다

섬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섬센터에 언제든지 공유해주세요.

에디터 김신연

- 전화 : 061-286-6764 - 이메일 : fun1015@korea.kr

전남의 섬에서 펼쳐지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옷

##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8 그 시절, 상화도는 내 젊음이었다  
6명의 꽃할매와 안성숙 님21 아랫꽃섬! 지금부터 시작이다  
임채동 님

## RESOURCE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24 1월부터 12월까지,  
여수 상·하화도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 25 알아두면 쓸모있는 K-섬 잡학사전

##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 26 여수 상·하화도 투어가이드

## NEWS&amp;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 32 한국섬뉴스와 함께하는 이달의 주요 섬 뉴스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 엄마의 섬

## ‘섬여자 가마꼭지 머리털 성할 날 없다’

섬은 이중적 존재입니다. 바다로 닫혀 외부와 단절되면서도, 동시에 그 바다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런 공간에서 어머니들은 생존과 공동체의 중심축이자, 섬의 숨결을 지켜온 존재였습니다.

## ‘바다[海] = 물[水] + 사람[人] + 어머니[母]’

한자 조합이 너무도 절묘합니다. 섬은 물로 둘러싸인 땅, 그리고 그 물에서 생명을 구하며 자식을 키워낸 어머니의 무대입니다. 그리스 크레타섬에서부터 제주, 다도해의 여수 하화도까지 섬 여성들은 언제나 삶을 이끄는 주체였습니다. 울력으로 학교를 세우고, 노를 저어 자식을 학교에 데려다주며, 바닷일과 장시를 오가던 그들. 하지만 그 삶은 자량이 아니라 “물지 마소”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당연히 감당한 몫일 뿐.

거센 바람, 염분에 짓눌린 머리털처럼, 삶의 무게는 고스란히 어깨 위로 내려앉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향해 노를 젓고, 자식들을 위해 고된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몫을 기억하고,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섬의 늙음이 낡음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배려와 지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그려야 합니다.

## 도움 주신 분

김준 섬 문화 박사 겸 작가

김재호 한국섬진흥원 정보통계팀 팀장

박부이, 장욱자, 이정덕, 황삼예, 김흔이,

임소방 상화도 어르신

안성숙 상화도 이장

임채동 하화도 이장

여수시 화정면사무소

양진형 한국 섬 뉴스 대표

## 발행처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글·사진 정태균, 김신연

## 전남 섬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 가고 싶은 섬 소식이 궁금하다면?

## 지금까지 발간된 '시옷'이 궁금하다면?



섬 어머니만 생각하면  
울컥해요...

\* 영상정보  
목포MBC 여영치바다야 2023. 11. 8





##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 마주보는 두 섬, 서로 다른 길을 걷다

## #여수시 꽃섬

섬문화답사기 저자 | 김  
한국섬진흥원 이사 | 준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선실에 빼곡했던 여행객들이 아랫꽃섬에 이르자 모두 내렸다. 배는 빈 소라처럼 뱅했다. 캠핑 배낭을 짊어진 젊은이들은 총총걸음으로 선창을 지나 야영장으로 향했다. 울긋불긋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은 꽃섬길을 따라 올라갔다. 그리고 여행객을 쫓아낸 여객선은 윗꽃섬 상화도로 향했다. 상화도에서 내려야 할 승객은 거의 없다.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여수시 화정면 상화도와 하화도의 풍경이다.





▲ 상화도에서 바라본 하화도

## Chapter 1

### 가깝지만 먼 섬, 상화도와 하화도

화정면에는 여자만의 대여자도와 송여자도, 붓돌바다로 가는 길목에 조발도, 둔병도, 낭도, 사도, 추도, 적금도, 상화도, 하화도, 가막만 입구에 백야도, 제도, 개도, 자봉도, 월호도 등 15개의 유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여수시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면이다. 그 중 고흥곶과 여수곶을 잇는 다리, 돌산읍과 개도를 잇는 다리 등으로 대부분 연륙연도교가 완공되었거나 계획 중이다. 유일하게 섬으로 남은 화정면 유인도는 추도, 상화도, 하화도, 자봉도다.

상화도와 하화도 두 섬은 가깝지만 먼 섬이다. 물리적인 거리는 1킬로미터 남짓이지만 두 섬을 오가는 주민은 거의 없다. 주민들만 아니라 하화도로 밀려드는 여행객 중에서 상화도로 건너가는 사람도 보기 어렵다. 섬 주민들은 면면히 서로 아는 사이이며, 시내(여수)를 오갈 때 같은 배 안에서 만나 인사를 나눌 정도로 서로 아는 사이지만 교류는 없다. 하물며 서로 힘을 합해 섬을 살려보자는 생각은 욕심이다. 아쉬운 점이다. 이웃한 제도나 백야도 등 다른 섬에서 시집은 어머니들은 있지만 두 섬이 서로 혼인한 경우도 드물다. 하지만 이름은 형제처럼 상화도와 하화도, 주민들은 위꼬지와 아래꼬지라고 부른다.



▲ 하화도에 설치된 국내 최초 섬 태양광발전소

▲ 하화도에 설치된 국내 최초 섬 태양광발전소

봄철 여수지역 섬을 찾는 여행객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섬을 꼽는다면 하화도를 빼놓을 수 없다. 처음부터 하화도가 널리 알려진 섬은 아니다. 아래꼬지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8년 4월 국내 최초로 도서 20kw 도서용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서다. 당시 48가구는 250여 주민이 가구당 형광등 3개, 백열등 2개, 컬러TV1대, 보온밥통 1개씩 사용하는 필요한 전력(월 40kwh) 48시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당시 하화도 주민들은 디젤발전기에 의해 하루 3-4시간 밖에 전기를 쓸 수 없었다. 그 동안 주민들은 여수에서 기름을 사다가 발전기를 돌려서 불을 밝혔다. 그 덕에 전기밥솥은 6대에서 10대로, 텔레비전은 7대에서 52대로, 냉장고는 10대에서 38대로 늘었다(한겨레, 1990.2.22.). 1992년 기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유인도는 250개였다. 이후 제주 마라도, 보령 호도에 태양광발전소가 세워지기도 했다.

## Chapter 2 최초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다

## Chapter 3

### 꽃보다 밥이다



▲ 하화도선착장에 도착한 여행객

하화도가 꽃섬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와 전라남도가 추진한 ‘테마섬’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다. 전라남도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이전에 ‘테마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중 상화도와 하화도는 야생화가 많은 섬이라는 지명 유래를 근거로 꽃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하화도만 아니라 상화도에도 꽃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지만, 여행객들은 하화도를 더 많이 찾았다. 두 섬 모두 식당도 없었고, 가게도 없었다. 섬을 찾는 여행객들이 생기면서 부추전, 아이스크림, 막걸리 등을 팔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하화도에서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섬을 찾는 사람들에게 섬 밥상을 차려냈다. 또 꽃섬길로 알려진 걷는 길에 꽃을 심고 가꾸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상화도에 비해 완만하고 걷기 편한 길과 바다와 어우러지는 경관도 한몫했다. 이중 결정적인 역할은 섬 밥상이다.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정책을 기획할 때 목표이고 목적이기도 했다. 어쩌면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 목표에 가장 근접한 섬이라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 하화도는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화도가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마을일을 맡고 있는 임채동 이장은 섬을 찾는 사람이 많은 만큼 꽃길가꾸기, 쓰레기처리, 안전점검 등 해야 할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2017년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여행객들이 늘었다. 그리고 부녀회식당 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도 하나둘 생겼다. 지난해 봄부터 초여름까지 성수기에는 하루에 1천5백 명이 들어오기도 한다. 마을이장이 집계한 기준으로 지난해 15만명이 방문했다고 한다. 여행객이 늘면서 이장은 하화도 꽃섬길 외에 해안로 돌 수 있는 둘레길이 조성되기를 원한다. 고향을 지키려는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귀하다. 부녀회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들도 나이가 많다. 젊은 사람이든 자신처럼 퇴직후 귀향을 하든 섬에 들어와 살려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행객이 느는 것이 곧바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연결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 Chapter 4

## ‘도부’로 살았다

상화도와 하화도 두 섬 모두 쌀농사를 지을 논이 없고, 밭농사를 지을 경사진 산자락을 일궈야 했다. 특히 위꼬지는 경사가 더욱 심했다.

밭농사로는 생필품을 구입 할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또 배를 접안 할 좋은 선착장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 이어서 어장도 어려웠다. 한때 마을 앞 갯벌에 김 양식을 했지만 완도 등 양식 하기 좋은 지역에서 큰 규모로 양식을

하면서 지속하기도 어려웠다. 무엇보다 김 양식을 하려면 채취한 후 민물에 세척하고 건조가공을 해야 하는데 물 사정도 만만치 않았다.

상화도에서 유일하게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것이 돌미역과 파래였다. 다행스럽게 해안은 미역과 파래가 잘 자라고, 물질을 하지 않고도 물이 빠지면 채취할 수 있었다. 봄부터 여름을 제외하고 가을까지 해조류를 채취하기 좋은 물때에 채취해 조금에 팔러 다녔다. 이렇게 돌미역을 팔려서 팔러 나가는 것을 주민들은 ‘도부간다’고 말한다.



▲ 세월을 간직한 상화도 어머니의 손

마른 돌미역과 파래를 가지고 여수로 나가서 기차를 타고 순천, 벌교, 곡성, 남원, 멀리는 논산까지 갔다. 경로당에 모인 어머니들이 ‘우리가 안간데가 없어’라며 도부를 갔던 곳을 말했다. 이렇게 도부를 나가는 철이면 30여 명의 어머니들이 도부를 나갔다. 이 무렵이면 상화도에는 어머니들은 없었고, 남자와 아이들이 뿐이었다. 도부를 나가는 어머니들은 돌이 짝을 지어 나갔다. 남원이나 곡성은 밥도 주고 잠도 잘 재워줬는데, 삼례는 인심이 박했어라며 마을인심도 평했다. 미역을 사는 집에 물건을 조금 싸게 주거나 더 주고 잠도 자고 먹는 것도 해결했다.

힘들었지만 도부를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은 도부를 마치면 쌀을 사서 독에 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선창에서 눈이 빠져라 엄마를 기다리다 사과를 받아 먹는 아이의 모습도 잊을 수 없었다. 이 대목에서 어머니들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부를 나가야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모두 학교에 보내고, 공무원도 만들었다. 이제 어머님들은 도부 대신에 썩을 재배해 여수시장에 나가 팔고 있다.



▲ 도부를 다녀온 상화도 이말레 어르신

## Chapter 5

## 섬과 육지를 잇는 길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을에는 두 개의 우물이 있었다. 식수로 이용하는 큰 샘과 빨래할 때 이용하는 작은 샘이다. 모두 선창에서 보면 경사가 급한 언덕 위에 있었다. 계다가 많은 60여 가구 어머니들이 아침저녁으로 줄을 서서 물 동이에 물을 길어 머리에 이고 울통 불통한 돌계단을 오가는 일은 고역이었다.

빨랫감을 가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빨래 하는 일도 마찬가지였다.

상화도에는 산에서 흐르는 개울이 없어, 빨래를 하려면 아랫샘으로 모여야 했다. 윗샘이나 아랫 샘은 지금도 남아 있다.

어머니들은 도부 갔던 일과 함께 샘에서 물을 길었던 기억을 힘들었던 일로 꼽았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일이지만 따지고 보면 척박한 섬살이가 주었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일상이었다. 매일 줄을 서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려 물동이에 담아 머리에 이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렸다. 한 어머니는 물동이를 이고 와서 보니 가득 담은 물이 반밖에 없었다고 했다.



▲ 상화도의 경사진 마을길

여수에서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최 된다.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외에 금오도와 개도에서도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외에 꽃섬처럼 기왕에 많은 여행객이 찾는 곳을 섬박람회와 연결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화도와 하화도를 잇는 뱃길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또 백야도에서 제도, 개도, 하화도, 상화도, 추도, 사도, 낭도를 순환하는 배편 을 증편하고, 종점인 낭도와 여수엑스포역이나 공항터미널을 연결하는 시내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섬 여행은 육로와 연결하는 교통편이 마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 하화도 하늘에서 바라본 주변 섬들



#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 꽃이 흐르는 섬, 하화도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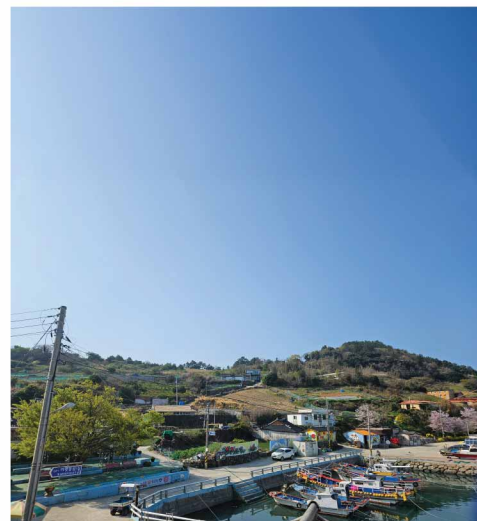
[ SPECIAL GUEST ]

김재호 한국섬진흥원 정보통계팀 팀장



### Chapter 1. 첫 만남, 알록달록 꽃 향기의 섬

2025년이 시작되고 섬을 둘러보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를 마치고 떠난 하화도. 어느 때와 같은 출장길이였지만, 2025년 첫 섬 방문이라는 생각에 설렘이 앞섰다. 여수 앞바다의 작은 섬, 푸른 바다 위에서 바라본 하화도는 완만한 경사지에 부채꼴 모양으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푸른 바다와 파란 하늘 사이로 하얀 꽃, 노란 꽃, 빨간 꽃, 짙은 초록이 어우러져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다. 배가 작은 선착장에 부드럽게 닿자, '꽃섬'이라는 이름 그대로 평화롭고 아늑한 풍경 속에서도 섬을 떠나려는 인파와 뒤섞여 활력이 넘치는 모습이 섬이 가지고 있는 또다른 매력을 주고 있었다.



▲ 따뜻함이 반겨주는 하화도 마을 초입 풍경

왁자지껄 선착장을 떠나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거기에는 바닷가를 따라 늘어선 수많은 벚나무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눈부시게 이어진 꽃길에서는 출장길에 동행했던 모두가 '우와'를 연발하고 있었다. 누구라도 금세 꽃섬의 여행자가 된 듯했다. 그 눈부심은 단순히 햇살 때문만은 아니었다. 하화도의 섬 사람들은 오랜 시간 꽃과 함께 살아왔던 것 같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전쟁을 피해 가족과 함께 뗏목을 타고 피난을 가던 안동 장씨가 우연히 하화도를 지나면서, 동백꽃과 섬모초, 진달래가 만발하여 매우 아름다운 섬이라 여기고 정착함으로써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 하화도 탐방로의 시작을 알리는 벚나무와 여행객들

그래서인지 섬의 해안을 따라 형성된 길가에도, 섬의 작은 언덕에도, 구석구석 어디를 가든지 노란 유채꽃의 물결, 보라색, 분홍색, 흰색의 다양한 야생화들 그리고, 조용히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화사한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주민들이 정성을 담아 가꾼 꽃들 사이를 지나며 바라본 하화도의 풍경은 작은 꽃들이 하나하나 모여 그린 커다란 그림과 같았고, 섬 곳곳에서 피어난 꽃들은 조화롭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며 섬 전체가 하나의 큰 꽃다발로 느껴지게 했다.

이 풍경을 마주한 순간, 꽃의 섬 하화도는 그 이름을 충분히 설명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 마을 골목마다 활짝 핀 하화도의 꽃 벽화

### Chapter 2. 벽화에 담긴 마음

하화도의 매력은 꽃에만 머물지 않았다.

마을로 들어서자 담벼락마다 그려진 형형색색의 꽃벽화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누군가의 손길이 정성스럽게 담긴 벽화들은 실제 꽃들과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풍경을 만들어냈고, 섬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다. 벽화 속 꽃들은 주민들의 자부심과 애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으며, 주민들이 함께 만든 이 소박한 작품들은 꽃섬이라는 섬의 정체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었다.



### Chapter 3. 새로운 섬 가꾸기, 스마트 아일랜드

최근 하화도는 새로운 섬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다.

하화도의 경우에도 어느 섬과 동일하게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다. 한국섬진흥원에서 조사한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3명의 주민분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율은 2015년 이후 -7.02%(동기간 전국 인구증감비율 +1.28%)였으며, 고령화율은 45.28%(동년기준 전국 고령화율 18.0%)에 이르고 있다. 최근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고, 캠핑족이나, 백패커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초고령·소규모 인구 구조는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밖에 없으며, 선착장과 둘레길 등에서 섬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 하화도의 밤길을 지켜주는 작은 안전등 불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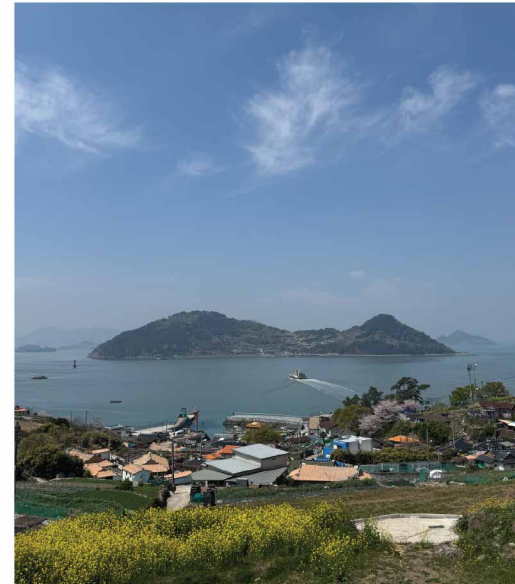
▲ '24년 하화도에서 시범 운영된 여수시 섬 드론 배송 서비스

보다 더욱 향상된 정주여건 속에서 관계인구와, 정주민구를 품을 여력도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아름다운 경관과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함께 굴러가며, 작지만 자립적인 섬 생활 모델을 완성해 나가는 섬이다. 관광과 환경, 주민의 삶이 어우러지는 방식은 미래 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하화도의 사례가 다른 섬과 마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화도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사업은 작은 섬이 겪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의 부담을 덜고, 늘어나는 여행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하였다. 섬은 여전히 꽃과 바다가 만드는 풍경으로 기억되겠지만, 그 이면에서는 기술이 조용히 움직이면서, 낮에는 관광객이 꽃길을 걸으며 사진을 남기고, 밤에는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인프라의 확충은 장기적으로 스마트 아일랜드가 구현하고자 하는 원격진료·온라인 교육·스마트 물류, 스마트 관광같은 서비스가 들어올 기반이 생기고, 지금



▲ 단단한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하화도

### Chapter 4.

#### 공동체 강화를 통해 함께 가꾸는 내일

이러한 변화는 단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주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다.

섬처럼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공동체의 의미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러한 움직임은 공동체와 함께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를 타기 전, 포구 근처 카페에서 '그 섬 이장님이 일을 참 잘한다'는 말을 우연히 들었다. 섬을 가꾸어 가는 중심에 부지런하신 리더와 협력적인 주민분들, "역시 이렇게 굴러가는 협력 구조의 중심에 공동체가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주민들이 함께 꽃을 심고 가꾸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이 과정이 내일의 하화도를 그려나가고 있는 것이며, 그 자체가 하화도의 진정한 매력이자 미래가 아닐까 싶다.



▲ 마음속 따뜻한 여운을 남기는 여수 하화도 꽃섬길

### Chapter 5.

#### 꽃이 지고 남은 기억

하루가 저물 무렵, 섬을 둘러싼 꽃길을 걸으며 봤던 섬들과 마을이 다시 떠오르며, 그 길을 걸으며 느껴졌던 마음속에 따뜻한 여운을 간직했다. 꽃이 피고 지는 섬, 하화도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남길 것이다. 그 기억은 단지 꽃이 주는 아름다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섬의 미래와 주민들의 꿈을 담아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다.

#### 앞으로 그려나갈

#### 하화도의 내일을 기대한다.



## LIFE 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올해도  
우리 섬은  
꽃이 피었습니다

1

## 섬사람과 손님을 연결해주는 초록의 징표 '소불'

상화도와 하화도의 마을 어귀, 텃밭 한 칸에는 봄이 되면 어김없이 초록빛 부추가 자랍니다. 이곳에서는 부추를 '소불'이라 부르는데, 이름만 들어도 봄 내음이 은은히 퍼지고, 섬 사람들에게겐 계절을 알리는 반가운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소불은 토질을 크게 가리지 않고 병해충에도 강해, 키우기 부담이 덜한 작물입니다. 한 번 심어두면 여러 해 동안 계속 수확할 수 있어, 해마다 마을은 다시 초록빛으로 물들지요. 보통 3월 중순부터 밭에 씨를 뿌려 키우기 시작하고, 11월 무렵 날씨가 서늘해지면 뿌리는 겨울을 준비하며 잠시 쉬어갑니다. 부추는 약재로도 오랫동안 쓰여 왔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구채(韭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어혈을 풀고 해독 작용이 뛰어나다고 전해집니다. 요리 재료로도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해물부추전부터 무침, 국거리까지 섬 밥상 곳곳에서 소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추 한 줌이 밥상에 오르면, 그날의 계절까지 함께 차려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꽃섬이라 불리는 상화도와 하화도에서 소불은 더욱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봄철, 해풍을 맞으며 천천히 자란 부추를 빠르게 बे지 않고 정성껏 수확합니다. 이처럼 여유롭게 길러낸 부추는 잎이 유난히 부드럽고 향도 깊어 섬 안에서도 귀한 봄나물로 손꼽히지요.

▼ 여수 상화도 마을 주민의 텃밭



▲ 봄 향기 담은 부추를 손질하는 하화도 부녀회 손길

그래서 주민들의 식탁에도, 손님을 맞이하는 음식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마을 곳곳에는 소불이 자라고 있습니다. 집 앞 텃밭은 물론이고, 빈집을 아예 밭으로 바꾼 풍경도 흔합니다. 수확한 부추는 시장에 판매되기도 하지만, 때론 섬을 찾은 여행자의 식사가 되기도 하고, 꼭 사가야 하는 섬 특산물로 사랑 받기도 합니다. 소불은 이 두섬의 사람들을 닮은 작물입니다. 손끝으로 정성껏 가꾸고 계절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자라며, 마침내 누군가의 밥상 위에 따뜻하게 자리합니다. 이 섬에서 자란 소불은 사람을 잇는 작은 다리이자 이야기가 깃든 징표입니다. 그 위로 피어나는 삶의 온기와 정성은 상화도와 하화도의 봄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 속을 든든히 채워준 상화도 안성숙 이장의 부추전





▲ 오전 9시 여수 하화도 부녀회 식당

## 2

### 알록달록 파라솔이 펴지면 따뜻함이 차려진다

오전 9시가 되면 하화도 부녀회식당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알록달록 파라솔이 어김없이 펼쳐지고 마당에는 금세 따뜻한 기운이 감돕니다. 이날 준비될 식재료는 대부분 마을에서 키운 제철 채소로 부추, 달래, 쑥처럼 밭에서 자란 식재료부터 바다에서 건진 문어나 서대 같은 해산물까지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재료로 정성껏 식사가 차려집니다. 이곳은 부녀회원들이 돌아가며 운영하는 공동 식당입니다. 섬 주민은 따뜻한 한 끼를 무료로, 여행객은 작은 비용을 내고 하화도의 섬 밥상을 맛볼 수 있지요.



▲ 식사를 준비하는 하화도 부녀회의 바쁜 손길

식사 준비는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척척 이루어 집니다. 누구는 밥을 짓고, 누구는 나물을 다듬고, 또 누구는 상을 차립니다. 따로 말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에 익숙한 공동체의 온기가 묻어납니다. 밥을 짓는 일은 단순한 노동을 넘어서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자리에 둘러앉아 안부를 나누고 작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사이 마을의 하루도 조용히 흘러갑니다.



매콤새콤달콤,  
입맛 돋우는  
서대회 무침



바다의 부드러움  
돌문어 숙회



밥상 위에 놓인 한 그릇의 정성은 어떤 날엔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화도 부녀회 섬 밥상은 모두를 위한 자리입니다. 섬을 찾은 이에게는 따뜻한 환영이 되고 이 섬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루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함께 짓고 함께 나누는 이 식탁 위에 하화도의 마음이 담깁니다. 그날의 계절과 정성이 함께 차려지는 부녀회밥상 그 위에는 오늘도 하화도의 하루가 고요히 놓여 있습니다.

하화도를 방문하신다면 부녀회식당에 들려 제철 섬 밥상 느끼고 가시길 추천 드립니다.



##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시절,  
상화도는  
내 젊음이었다

6명의 꽃할매와 안성숙 상화도 이장



## Q1 예전과 비교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안성숙 상화도 이장** 예전엔 마을길도 좁고 울퉁불퉁했는데, 지금은 차가 다닐 만큼 넓어졌제~집집마다 나무 떼서 불 피웠는데 이제는 다 기름보일러 쓰고, 가스도 쓰고. LPG 가스통 하나씩은 다 있당께~ 내가 결혼했을 땐 자가 발전기 썼어라. 시간이 되면 전기가 들어오고, 또 꺼져불고 그랬제. 그런데 지금은 한전에서 관리하는 발전소가 섬에 생겨서 24시간 전기를 쓸 수가 있게 되었지. 전기밥솥, 냉장고, 선풍기, 뭐든 다. 수도도 예전엔 다 물동이를 이고 다녔고 부엌 옆에 물 받아놓는 정지(우물통) 하나씩 있었어~ 지금은 수도가 나오니까, 옛날 생각하면 허벌라게 좋아졌제~~~!



▲ 상화도 마을 삼거리

집은 짚으로 이어서 짓고 또 짓고, 그렇게 살아왔어. 이젠 집도 반듯하고, 길도 반듯하고 참 좋은 세상이야~

**김흔이님** 상화도는 물복은 있었어. 근디~ 큰샘(식수용)과 작은 샘(빨랫물용)까지 갈라든 경사가 심해서 물 하나 뜨는 것도 일이었제. 물동이를 이고 그 험한 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갔는데, 집에 도착 하면 가득 채웠던 물이 반쯤 줄어 있을 때도 있었당께. 인자는 수도도 나오고, 생수도 있응께 올때나 편한 세상인가 싶어. 마을 길 경사는 여전한디, 길도 넓어지고 도로도 잘 닦여서 다니기 올때나 좋아졌는지 몰라. 또 지붕도 많이 바뀌었지. 예전엔 다 짚으로 엮었는데, 살림이 쪼메 나아지면 스텔트를 사서 바꾸곤 했어. 형편이 어려운

**황삼에님** 첫째 먹고 사는 거 바꿨지, 쌀밥만 먹고 살제, 지금은 쌀밥만 먹고 살잖아. 옛날엔 뭇 쌀이 있따요.

상화도는 논이 없는 섬이라 쌀은 귀했어. 그땐 보리, 감자, 고구마가 주식이었고 그중에서도 ‘빠깁이’라고 고구마를 잘라서 말린 것을 많이 묵었제. 빠깁이로 배를 채우던 시절이 있었어. 지금처럼 쌀밥이 흔한 세상이 오다니, 참 고맙고도 신기하제~

## Q2 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세요?

**임소방님** 상화도 아낙네들은 도부\*를 다녔어. 물이 빠지면 바다에 나가 미역, 파래, 김을 말려서 배에 싣고 나갔어. 기차를 타고 곡성, 순천, 벌교, 삼례, 남원, 천안... 기차가 가는 육지라면 안 가본 데가 없었어. 도부는 보통 둘이서 짝을 지어 다녔는데 한번은 삼례(완주군)에 갔는데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성님~ 이제 배가 고파 걸어댕기지도 못하겠네 지금 남원 가세." 그랬지. 기차 타고 남원으로 갔는데 인심이 얼마나 좋던지. 남원은 아직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

**김흔이님** 나는 도부를 곡성을 참 많이 다녔어~ 거가 인심이 좋아! 자반을 조금 내어주면 하룻밤 재워줬걸랑. 집도 따뜻하고 사람들도 다 정이 있었어. 장사를 잘하고 여유 돈이 조금 생기면 꼭 사과를 사 왔당께. 우리 아들이 사과를 참말로 좋아했거든. 살이며 과일이며 짐이 무거웠지. 그래도 그걸로 자식들 대학 다 보냈다니깐. 도부가 힘들긴 했어도 그 덕에 우리 아이들 공부시켰으니 올때나 고마운 시간이었는지 몰라.

\*도부(郵付): 장사치가 물건을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팔

※ 여수 섬에서는 위쪽 지역으로 해조류를 팔러 가는 것을 ‘웃넉장시 간다’고 한다.



▲ 경사가 만든 상화도 마을 풍경



**Q3 상화도는 어떤 섬인가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며 요즘 섬의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

**안성숙 이장** 상화도는 ‘마음이 쉬는 섬’이에요. 이름처럼 꽃처럼 예쁘고, 섬 끝마다 바다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곳이지요. 저는 이곳에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고, 불편한 점은 시청이나 면사무소에 연결해드려요. 노인회관에 들러 하루 인사를 나누는 것도 빠뜨리지 않아요. 요즘 섬은 조용하지만, 어르신들은 여전히 밭일을 하고, 서로 밥을 함께 지어 나누며 웃음을 주고받아요. 그런 소박한 일상들이 이 섬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요.

**장옥자님** 함께 이야기 하며 웃을 수 있는 사람들, 눈만 마주쳐도 반가운 얼굴들, 같이 물동이를 이고 만났던, 도부를 같이 나갔던 할매들이 있는 섬이여~ 그때 그 사람 마음은 변하지 않제~ 우덜이 살아온 여그 섬이 참말로 고맙고 좋지라~



[에디터 이야기]

**상화도는 조용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화도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물이 빠진 바다에서 미역을 따던 손길, 꽃보다 예뻐던 젊은 시절, 무거운 짐을 이고 기차에 몸을 실어 곡성과 남원을 오가던 기억들. 사과 한 알이라도 더 사오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까지 그 시절의 삶은 고단했지만 참 따뜻했습니다. “도부로 자식들 대학까지 보냈다”는 말에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무게를 온전히 짐작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만큼 깊이 전해졌습니다. 짚으로 덮은 지붕, 물동이를 이고 오르던 험한 돌길, 그리고 그 길을 걸어낸 꽃할매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늘의 상화도가 더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 여객선을 타기 위해 마을 비탈길을 조심조심 걸어가는 동안 어느새 상화도는 조용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아래꽃섬! 지금부터 시작이다

임채동 하화도 이장

**Q1 하화도라는 이름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하’는 아래 하(下), ‘화’는 꽃 화(花)를 써요. 그래서 하화도는 ‘아래 꽃섬’이란 뜻이에요. 맞은편에 있는 상화도는 ‘위 꽃섬’이라는 이름이고요. 섬 모양도 비슷하게 생겨서, 사람들은 상화도를 웃꽃섬, 하화도를 아래꽃섬이라 부르죠. 진달래나 선모초처럼 봄에 피는 꽃들이 많아서 더 잘 어울리는 이름이기도 해요. 꽃이 활짝 피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름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Q2 이장님께 하화도는 어떤 의미를 가진 섬인가요?**

이곳은 제 고향이에요. 어릴 때 여기서 초등학교도 다녔고요. 도시에 나가 살다 다시 돌아온 건 2019년이에요. 이제는 주민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북적였던 골목도 지금은 한산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서로 챙기고 돌보는 정이 남아 있어요. 매일 아침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는 이 길이, 제게는 삶의 중심이에요.





▲ 빈집터를 촛락빛으로 채워가는 하화도 농작물 부추

### Q3 하화도만의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다면요?

이 작은 섬에도 자랑할 게 많아요. 부추랑 고추, 그리고 직접 따서 말린 미역 같은 것들이요. 특히 부추는 하화도의 대표 작물이라서, 봄이면 부추전이 자주 올라와요. 부녀회에서 함께 운영하는 밥상도 있어요. 방문객들께 따뜻한 밥상으로 섬의 정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접을 받는 분들도 ‘이런 집밥, 오랜만이에요’ 하시며 참 좋아하세요.

### Q4 섬살이를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요?

관광객이 많이 오면 마을이 활기를 띠는 건 분명 반가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쓰레기 문제나 생활 소음 같은 어려움도 따라오죠. 주민 모두가 관광수익을 고루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앞으로는 마을 전체가 함께 이익을 나누고, 서로 지켜 가며 살아가는 방식이 되면 좋겠어요. 섬도, 사람도 함께 건강하게 이어 저야 하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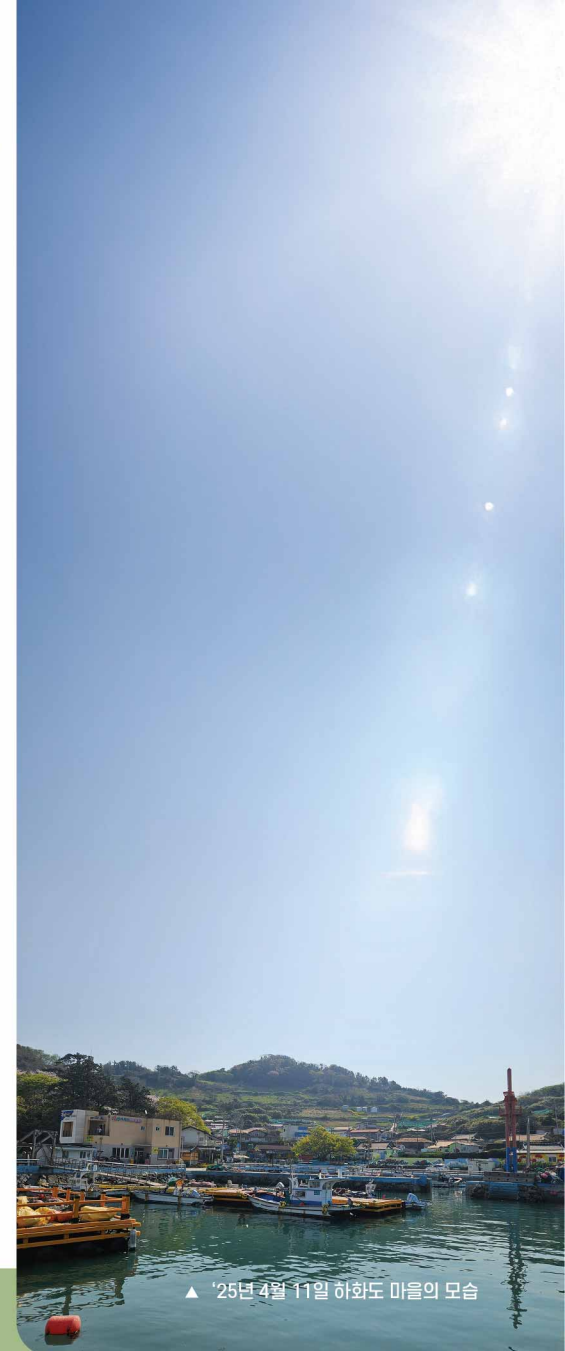
▲ 하화도에 입도한 오늘의 여행자들

### Q5 하화도에 추진 중인 스마트 아일랜드 사업에 기대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노인 인구가 많아요. 마을 골목이 좁고 산길도 있어서, 혹시나 하는 일이 늘 걱정이에요. 그래서 CCTV 같은 안전 장치가 설치되는 건 반가운 일이에요.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어르신들 안부도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면 좋겠어요. 비상시나 건강 관련 지원도 가능해지면, 멀리 있는 자식들 마음도 조금은 놓일 테고요.

### Q6 후손들에게 어떤 하화도를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계절마다 다르게 피어나는 꽃들, 해 질 녘 언덕 위에서 보이는 노을, 그리고 마을에 퍼지는 음식 냄새까지 다 소중한 자산이에요. 저는 후손들이 이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끼며 편하게 살아갔으면 해요. 그래서 마을에서 하는 사업도 열심히 참여해요. 언젠가 누군가 이곳에 와서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 '25년 4월 11일 하화도 마을의 모습

#### [에디터 이야기]

## 누군가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섬

섬을 걷다 보면 꽃처럼 조용히 피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곳곳에서 만나게 된다. 섬의 중심을 지키는 한 사람의 진심을 통해 하화도가 품은 아름다움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일부 관광객들이 버리고간 쓰레기와 소음, 마을의 고령화 같은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도 그는 ‘섬도, 사람도 함께 건강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말을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전했다. 섬을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는 그렇게 묵묵히 마을 골목과 바닷길을 지키고 있었다. 하화도의 일상은 화려하진 않아도 오래도록 따뜻했다. 누군가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섬 그런 하화도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 덕분에 오늘도 섬은 천천히 피어가고 있다.



# RESOURCES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여수 상화도 하화도에서 나고 자라는 모든 것



## 상화도

| 종 류      | 기 간                        |
|----------|----------------------------|
| 썩        | 3월~6월                      |
| 돌문어      | 4월~12월<br>*금어기: 5/24일~7/8일 |
| 갑오징어(자망) | 4월~6월                      |
| 간재미      | 4월~6월                      |
| 꽃게       | 4월~5월,<br>9월~10월           |

## 하화도

| 종 류     | 기 간                        |
|---------|----------------------------|
| 부추      | 3월~6월                      |
| 완두콩     | 5월                         |
| 썩       | 3월~6월                      |
| 호랑이콩    | 7월~8월                      |
| 머위      | 3월~5월                      |
| 돌문어     | 4월~12월<br>*금어기: 5/24일~7/8일 |
| 멸치(낭장망) | 4월~11월                     |
| 돌미역     | 4월~5월                      |
| 갑오징어    | 4월~11월                     |
| 간재미     | 4월~6월                      |
| 황가오리    | 4월~10월                     |

여수 상화도와 하화도는 여수항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바다 위에 나란히 자리한 섬입니다. 상화도는 최고 지점이 약 148m로 구릉이 발달해 있고 남쪽은 산지가 높고 북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작은 농경지와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화도는 섬을 따라 이어진 해안 절벽과 협곡이 특징이며 경사가 심한 지형 속에서도 주민들은 빈집 터나 작은 땅을 활용해 농작물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 알아두면 쓸모있는 알쓸K-섬잡

섬에서 나고 자라 우리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들!  
알아두면 쓸데없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쓸모 가득한 K-섬 잡학사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 금어기 禁漁期

금어기(禁漁期)는 물고기나 해산물이 알을 낳고 자라는 시기에 맞춰 어획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기간입니다. 쉽게 말해 바다가 생명을 키우는 시간을 지켜주는 자연의 휴식기이자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예를 들어, 봄~초여름은 많은 어종이 산란하는 시기로 이 시기엔 멸치, 낙지, 꽃게, 우럭 같은 어종의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구 사용이 제한되기도 하고 채취 자체가 금지되기도 하지요. 섬 주민들에겐 금어기가 수입이 줄어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알기에 이 시기를 소중히 지킵니다.

바다가 살아야 섬도, 어촌도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에 여행을 왔다면 이 시기엔 특정 해산물이 왜 없을까 궁금해하기보다는 바다가 한 생을 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금어기는 ‘잡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한 기다림’이니깐요.

안녕! 다시 만나요!





#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섬 여행 전  
날씨 확인은 필수겠죠?  
실시간 상·하화도 날씨 확인

## 여수 상·하화도 투어 가이드

\*2025년 4월 기준

### 1 기본 현황

| 상화도       |               | 하화도       |               |
|-----------|---------------|-----------|---------------|
| 가구·인구     | 46가구 · 67명    | 가구·인구     | 39가구 · 54명    |
| 면적·해안선 길이 | 0.76㎢ · 4.9km | 면적·해안선 길이 | 0.71㎢ · 6.4km |
| 주요 관공서    | 없음            | 주요 관공서    | 보건진료소         |

### 2 여객선 운항정보

#### ■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여객선)에서 승선하는 경우

| 운항방향 | (둔병)  | 낭도    | 사도    | 상화    | 하화    | 모전    | 여석    | 백야    | 여수    | 운항방향 |
|------|-------|-------|-------|-------|-------|-------|-------|-------|-------|------|
| 출항→  | 06:40 | 07:00 | 07:10 | 07:25 | 07:30 | 07:40 | 07:50 | 08:10 | 08:54 |      |
|      | 16:20 | 16:05 | 15:50 | 15:35 | 15:30 | 15:15 | 15:05 | 14:50 | 14:00 | ←출항  |

선사 / 선박명    선박명 : 태평양해운 / 태평양 1호  
전 화 번 호    (공용)061-662-5454, 061-686-6655 /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1666-0920  
성인 편도 비용    (하화) 10,600원, (상화) 10,800원  
주 의 사 항    여수↔낭도 : 월·목·금 / 여수↔둔병 : 화 / 매주 수·토·일요일 휴항

#### ■ 백야 낭도 항로(차도선)에서 승선하는 경우

| 백야    | 제도    | 화산(입) | 하화(입) | 상화    | 상화(출) | 하화(출) | 화산(출) | 제도    | 백야    |
|-------|-------|-------|-------|-------|-------|-------|-------|-------|-------|
| 08:25 | 08:45 | 08:48 | 09:10 | 09:15 | 09:20 | 09:30 | 10:00 | 10:05 | 10:20 |
| 11:55 | 12:10 | 12:20 | 12:45 | 12:48 | 12:55 | 13:05 | 13:30 | 13:35 | 13:47 |
| 15:10 | 15:25 | 15:35 | 15:55 | 16:00 | 16:05 | 16:10 | 16:40 | 16:48 | 17:00 |

선사 / 선박명    태평양해운 / 태평양 3호  
전 화 번 호    (공용)061-662-5454, (백야) 061-686-6655  
성인 편도 비용    (백야->상화) 8,100원 / (백야->하화) 7,500원 / (상화->하화) 2,200원

#### ■ 낭도 하화 항로 (여객선, 매주 토요일에만 운항)

| 낭도    | 사도    | 추도    | 상화    | 하화(입) | 하화(출) | 상화(출) | 추도(출) | 사도    | 낭도    |
|-------|-------|-------|-------|-------|-------|-------|-------|-------|-------|
| 09:40 | 09:55 | 10:05 | 10:17 | 10:20 | 10:30 | 10:35 | 10:50 | 11:00 | 11:10 |
| 13:10 | 13:25 | 13:35 | 13:47 | 13:50 | 14:00 | 14:05 | 14:20 | 14:30 | 14:40 |

선사 / 선박명    태평양해운 / 대형카훼리 3호  
전 화 번 호    (공용)061-662-5454  
성인 편도 비용    (낭도->상화) 5,200원 / (낭도->하화) 6,300원 / (상화->하화) 2,100원

### 3 숙박·식당 정보

#### ■ 숙박정보

| 지명  | 상호명        | 주소                   | 전화번호          |
|-----|------------|----------------------|---------------|
| 하화도 | 하화도 낭만 민박  | 여수시 화정면 아랫꽃섬 2길 13   | 010-9881-7093 |
|     | 하화도 민박     | 여수시 화정면 아랫꽃섬 1길 11   | 010-4465-2726 |
|     | 임마누엘 민박    | 여수시 화정면 아랫꽃섬 1길 13   | 010-2632-4585 |
|     | 하화도 꽃섬길 민박 | 여수시 화정면 아랫꽃섬 1길 6-1  | 010-8605-0471 |
|     | 섬바다 민박     | 여수시 화정면 아랫꽃섬 2길 6-24 | 010-2938-5892 |
| 상화도 | 웃꽃섬 민박     | 여수시 화정면 웃꽃섬 2길 16-1  | 061-666-0045  |

#### ■ 식당정보

| 상호명        | 주소                  | 전화번호          |
|------------|---------------------|---------------|
| 하화도 꽃섬길 식당 | 여수시 화정면 아랫꽃섬 1길 6-1 | 010-8638-5892 |
| 꽃섬 식당      | 여수시 화정면 아랫꽃섬 1길 15  | 061-665-1002  |
| 와소 식당      | 여수시 화정면 아랫꽃섬 1길 2   | 061-665-5496  |
| 하화도 꽃섬 휴게소 | 여수시 화정면 아랫꽃섬 1길 1-4 | 010-9881-7093 |

\* 상화도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 상화도와 하화도, 이름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진달래와 선모초가 섬에 만발하여 꽃섬이라 불렀다고 1991년 편찬된 여천군 마을유래지에 전해온다. 하화도의 서북쪽 1km 지점에 똑같은 꽃섬이 하나 있어 그 섬을 웃꽃섬, 하화리를 아래꽃섬이라 부르는데 이는 섬의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꽃섬은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인 ‘꽃섬’이 변한 말로 섬의 모양이 고추처럼 길게 생겨난 형태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풀이된다. 이를 꽃섬으로 여겨 예전부터 화도(花島)로 표기했기 때문에 꽃이 많은 섬으로 여겼으나, 다른 섬에 비해 꽃이 많은 섬은 아니었다.

## 두 섬의 역사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볼까요?

1896년 돌산군이 설립될 당시 화개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1914년 여수군이 설립되면서 화개면과 옥정면의 통합으로 화정면 상화리와 하화리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산지』에는 화개면(華蓋面)의 ‘하화도는 면에서 서쪽으로 40리 떨어져 있고, 백야도의 서쪽에 있으며, 둘레가 10리이다. 상화도는 면에서 서쪽 45리, 하화도의 서쪽에 있으며, 둘레는 7리이다.’라고 위치와 거리를 기록하고 있다.

『순천고돌산진지도』에도 하화도라고 기록하고 있다. 『대동여지도』와 『영남호남연해형편도』에서는 ‘소화도(小花島)’, ‘대화도(大花島)’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두 지도는 대화도와 소화도의 위치가 서로 달라 어느 섬이 하화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임진왜란 당시에 인동장씨(仁同張氏)가 처음 입도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진다. 이후에 파평윤씨(坡平尹氏)와 나주임씨(羅州林氏), 김해김씨(金海金氏) 순으로 들어와서 살았다고 전해온다.





## 하화도 꽃섬길, 걷는 것만으로 예뻐지는 이유!

하화도에서는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예뻐집니다.

섬을 한 바퀴 도는 약 5.7km의 꽃섬길은 산책처럼 가볍게 시작할 수도 있고 트레킹처럼 제대로 걸을 수도 있지요. 길을 따라 벚꽃, 유채꽃, 진달래, 붓꽃 같은 계절꽃들이 피고 산과 바다, 바람과 햇살이 겹쳐지는 이 길에선 걷는 ‘운동’을 넘어선 감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꽃길에서 가장 주목받는 명소는 단연 ‘꽃섬다리’입니다. 2017년에 개통된 이 출렁다리는 길이 100m, 높이 65m 두 해안 절벽 사이를 잇고 있어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할 정도로 푸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다리를 건너는 동안 살짝 흔들리는 감각은 두려움과 설렘 사이 어딘가에서 오래 기억될 한 장면을 선물합니다.

SNS에서도 ‘하화도 인생샷’ 명소로 꼽히며 늘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에요. 하화도 트레킹이 사랑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OK!

걷다 보면 건강도 OK!

멋진 풍경과 사진까지 OK!

하화도를 걷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누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트레킹의 끝에는 막산전망대와 예림민 야생화공원이 기다립니다. 출렁다리의 짜릿함, 소나무 숲 아래 노을빛 풍경, 360도 바다를 품은 전망대 위에서 사방으로 펼쳐진 섬의 하루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곳엔 말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화도는 요란하지 않지만 꽃길을 따라 걷고, 다리 위에서 멈추고, 바다 내음을 따라 다시 걷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아름다워집니다.

TRAVEL ●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 하화도 꽃섬길

약 6km

3시간 정도 소요

**START** 선착장 (1.6km) → 낭골전망대 (0.6km) → 시냇골전망대 (0.4km) → 휴게정자2 (0.6km)  
→ 순넙발넙 구절초공원 (0.4km) → 큰산전망대 (0.3km) → 갯넙전망대 (0.2km) → 큰굴삼거리 (0.4km)  
→ 막산전망대 (0.3km) → 큰굴삼거리 (0.6km) → 예림민 야생화공원 (0.6km) → 선착장 **FINISH**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꽃섬 길은 총 5.7km로, 해안선을 따라 섬을 한 바퀴 도는 코스다. 험한 코스는 나무계단으로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충분히 완주할 수 있는 둘레길이다.

### 꽃섬 꽃달력

- 봄** 진달래, 철쭉, 유채, 꽃무릇(석산), 팽이밥, 갯까치수영, 전호
- 여름** 부추, 씩부쟁이, 작약, 가막사리, 개망초, 머느리밥풀, 닭의장풀, 꽃쇠비름, 엉겅퀴, 참나리, 원추리
- 가을** 가막사리, 구절초(선모초), 코스모스, 뽕판지, 고마리, 해국
- 겨울** 복수초, 동백, 애기동백



# NEWS&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 행안부, '제6회 섬의 날' 맞아 섬 마을 아이 꿈 응원

김채경 기자 | 2025. 05. 13.



### ◎ 완도·진도·고흥 지정기부자에 호텔 숙박권도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 8일 전남 완도군에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알리고, 섬 지역 대상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6회 섬의 날×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섬의 날'은 매년 8월 8일로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행안부는 내달 30일까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28개 시군 대상 고향사랑기부자(일반기부) 중 4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 행안부, 제6회 섬의 날 홍보대사 위촉식

김채경 기자 | 2025. 05. 20.



### ◎ 홍보대사 하현우·안성훈·트리플에스·오세득·정지선·위하준 등 위촉

8월 8일인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섬발전촉진법'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올해로 6회째를 맞으며, 매년 섬이 있는 지자체에서 행사가 개최된다. 홍보대사들은 올해 전남 완도에서 펼쳐질 섬의 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행사기간에는 현장을 찾아 방문객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 전남도-부산시-조직위,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협력

문훈미 기자 | 2025. 05. 13.



### ◎ '섬의 수도'·'해양수도' 간 전략적 해양파트너십 다져

전남도와 여수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13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부산시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해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행사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남해안을 하나의 해양경제권으로 연결하고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전남 섬여행, 초대형 크루즈로 즐기세요"



### ◎ 23일-내달 1일 금·토 출발 '1박2일' 운항...전국 최초 ◎ '도민 20% 할인'...여수야경·일출 등 볼거리 다채

전남도가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붐업을 위해 초대형 크루즈선을 시범 운항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섬 밤바다 크루즈'는 오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금·토요일 여수에서 출발해 1박2일 동안 금오도, 거문도, 백도 등 전남의 아름다운 섬을 항해하는 전국 최초 섬 크루즈 여행이다.

양진형 기자 | 2025. 05. 07.

## 신안군, '교통재단' 출범... 전국 최초 여객선 공영제 출발



### ◎ 공영 여객선 운영으로, 항로의 전문성·책임성·공공성 확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남 신안군이 섬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여객선 공영제에 나섰다. 신안군은 2일 신의면 동리 선착장에서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재단법인 신안교통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을 동리선착장에서 가진 이유는 신안군의 남부권역(하의, 신의, 장산) 항로가 공영화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김준성 기자 | 2025. 05. 02.

## 신안 햇빛·바람연금 '그린월드어워즈' 금상 수상



### ◎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 정책 '세계의 롤모델'로 우뚝

세계 최고 권위의 환경 시상식 '그린월드어워즈(Green World Awards)' 그린에너지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계 4대 환경상 중 하나인 '그린월드어워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준 정부, 기업, 단체에게 수여된다. 자연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작은 섬 지역 지자체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음을 세계가 인정한 셈이다.

김준성 기자 | 2025. 05. 12.

## "사람을 지켜야 국경도 지킨다"... 소멸 위기 '먼섬' 살려야



### ◎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사람이 살아야 해양영토로 인정 ◎ "고령화·인구 유출로 무인화 위기...해양영토 관심 필요"

국토 최외곽에서 국경수비대 역할을 수행하는 먼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와 함께 특단의 지원책도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국토정책 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국토외곽 먼섬(43개)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유출 심화로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 의료공백·의료교육 사각지대 등 국민의 기본권 미충족과 국가의무 제공의 한계에 있다.

김채경 기자 | 2025. 05. 08.





2025  
전라남도섬발전지원센터



2025  
전라남도섬발전지원센터